

# 구약논단

제 15권 4호(통권 34집) 2009년 12월 31일

배 정훈(장신대)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	69
이 연구는 다니엘서를 역사비평방법을 넘어서서 정경의 관점에서 읽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본문의 통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정경해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니엘서 1-6 장에서 다니엘은 역사적인 포로 70년을 경험하고, 단 7-12장의 공동체를 위하여 새로운 신학적인 포로를 견딜 수 있도록 예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역사비평적인 연구물들을 교회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Pae, Chong-Hun The Book of Daniel Reading from the View of Exile Theology .....	69

---

##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

배 정훈 | 장신대

### 1. 들어가는 말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서로 다르다. 19세기까지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의 현자인 다니엘의 순수한 예언으로 여겨졌다.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니엘서는 기원전 2세기 공동체의 위기와는 상관없이 기원전 6세기 다니엘을 비롯한 디아스포라의 삶과 다니엘의 미래 예언, 그리고 다가오는 종말에 관한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으로까지 해석된다. 18세기부터 시작된 비평적인 이해는 다니엘서의 저작권, 연대규명과 성격의 문제에 집중되었다. 학자들은 언어와 역사와 신학과 논리에 근거하여 다니엘서를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카비 시대에 쓰인 작품으로 여기게 되었다.<sup>1)</sup> 학자들은 다니엘서에 관한 비평학적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동의하게 된다:

1)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거짓 이름 (pseudepigraphy)이다. 기원전 2세기에 쓰인 다니엘서의 합법성을 위하여 고대 지혜자인 다니엘의 이름을 취하였다.

---

1) B. S. Childs, 「구약정경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586쪽.

- 2) 단 1-6장의 이야기들은 전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단 7-12장의 환상들은 마카비 시대에 무명의 저자에 의하여 쓰였다.
- 3) 단 1-6장의 이야기들은 단 7-12장의 환상들보다 오래 되었지만, 다니엘서의 최종본은 마카비 위기 직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되었다.
- 4) 다니엘서는 서구의 정치적인 역사나 종말론적인 미래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당대의 종교성에 관한 증거로 읽어야 한다.<sup>2)</sup>

이러한 연구들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성공하였지만, 다니엘서를 기원전 2세기의 삶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기원전 6세기의 삶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로 주어진 단 1-6장을 창작된 허구요, 기원전 2세기의 편집자에 의하여 원래 의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해함으로 최종본문 입장에서 단 1-6장에 부여해야 할 권위를 상실하게 만든다.

이 글은 이와 같이 그동안의 다니엘서에 관한 역사비평적인 연구에서 발견된 결과들을 정경이라는 입장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정경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최종 본문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최종 본문의 공시적인 방법만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3)</sup> 정경해석방법에는 최종 본문을 만든 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시적인 방법과 최종 본문 자체의 전승을 강조하는 공시적인 방법 등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최종 본문을 만드는 공동체를 강조할 때 우리는 본문이 공동체의 다양한 경험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주시하고, 최종 본문을 만든 공동체보다는 본문 전승의 권위를 고려할 때 공시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다. 기원전 2세기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의 작업은 단순히 그들에게 주어진 최종본문의 공시적인 특징만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연구는 역사적인 포로 70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단 1-6장의 본문 전승이 기원전 2세기에 사용된 신학적 포로를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함을 강조함으로써 통시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정경해석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다니엘서를 정경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종말이라는 주제를 기원전 6세기와 기원전 2세기의 역사적인 정황과 연결시킬 뿐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종말에 관한 적절한 해석학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까지 고려함을 의미한다. 다니엘서를 정경의 관점에서 읽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마카비 시대

2) J. J. Collins, "Current Issues in the Study of Daniel," J. J. Collins(ed),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Brill Academic Publisher, INC: Leiden, 2002), 2쪽.

3) 정경해석 방법의 통시적인 특징과 공시적인 특징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 정훈, "정경해석 방법의 이해," 『신학과 문화』 제 9집 (2000년), 71-90쪽.

에 무명의 예언자가 마카비 1서와 마카비 2서의 저자들이 행한 것처럼 당대를 새로운 예언의 시대로 이해하지 않고, 기원전 6세기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단 1-6장은 없어도 되는 가짜 문헌이 아니라 단 7-12장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다. 단 1-6장은 디아스포라들의 역사적인 포로를 다루고, 단 7-12장은 자신들을 포로라고 규정하는 기원전 2세기 공동체를 위하여 신학적인 포로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단 1-6장과 단 7-12장을 정경의 관점에서 포로의 신학으로 읽으려는 것이다.

## 2. 포로 70년으로 읽는 다니엘서 1-6장

단 1-6장은 다음과 같이 역사적인 포로 70년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로, 단 1-6장은 역사적인 포로 기간을 실제 70년으로 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출발점은 포로를 70년으로 산정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이해에서 시작된다.<sup>4)</sup> 포로에 관한 다니엘서의 기록은 다른 성서의 기록들(왕하 24: 1-25; 대하 36: 5-21; 렘 39: 1-40: 6; 52: 1-34)과 조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sup>5)</sup> 역사적으로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의 저자는 여호야김 3년을 포로의 시작으로 선택한다.<sup>6)</sup> 다니엘서 기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에워싸고 기명을 바벨론에 가져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역대기하의 자료를 취하고 있다 (대하 36: 5-7; 대하 36: 8-10).<sup>7)</sup> 단 1-6장에서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만난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 (1장, 2장, 3장, 4장), 벨사살 왕 (5장), 다리오 왕 (6장) 등이다. 1장에서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니엘이 종말에 관한 마지막 예언을 하는 시점을 고레스 3년으로 보고 있다(단 10:1). 이 시점은 다니엘

4) 예레미야 25: 10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5)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성서 구절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즉위 4년까지 공식적으로 통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2) 바벨론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으로 원정을 왔지만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3) 모든 자료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둘러싸인 것은 여호야김이 아닌 여호야긴이 즉위하던 기원전 597년과 여호야김이 죽은지 오랜 후인 기원전 587/6년 경이다. C. L. Seow, *Daniel*, (Louisville, KY :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21쪽.

6) 포로 시작의 역사성과 자료 선택과 관련된 다니엘의 신학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 정훈, 「다니엘서: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서울: 한국 성서학 연구소, 2007), 52-61쪽.

7) 배 정훈, 위의 책.

이 아직 역사적인 포로의 끝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것으로서 역사의 포로를 1년 남은 시점에서 70 이레의 마지막 남은 반 이레를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에서 역사적인 포로 계산은 여호야김 3년(기원전 605년)을 포로의 시작으로 보고, 고레스 3년(기원전 536년)을 포로의 마지막 해로 보는 것이다. 고레스 3년(기원전 536)에서 역으로 70년을 계산한다면 기원전 605년이 된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역사적인 포로 70년을 여호야김 3년부터 고레스 3년까지로 산정한다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타나는 다른 문헌들과 다르게 그가 선택한 신학적인 결과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70년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시작될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끝날 때까지를 연상하며 예레미야의 70년은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렘 25: 11-12), 다니엘서는 어째서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을 포로의 마지막으로 이해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저자는 제국의 멸망보다는 70년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간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신학적인 해석의 결과로서 저자가 포로의 문자적인 기간 70년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둘째로, 단 2장에서 다니엘의 예언에 나타나는 네 나라도 역사적인 포로 70년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sup>8)</sup> 긴스버그(H. L. Ginsberg)는 단 2장과 단 7장이 모두 앗수르, 메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로 이어지는 네 왕국 사상에서 앗수르를 바벨론으로 대치한 네 왕국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9)</sup> 그는 단 2장의 꿈과 해석에서 첫 세 왕국이 네 번째 왕국의 시대에까지 존재한다는 것(단 2: 34-35)에 착안하여 이 예언의 시대를 역사적인 포로 70년의 범주 안에 두지 않고 기원전 307년부터 301년까지로 돌린다. 그는 이 시대가 셀류쿠스 1세가 재건한 바벨론 왕국과 함께 남아 있는 메대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이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한다.<sup>10)</sup> 그에 따르면 단 2장과 단 7장은 모두 그리스를 네 번째 왕국으로 해석하는 네

8) 필자는 다른 글에서 단 2장의 해석은 바벨론의 네 왕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지만, 이글에서는 관점이 바뀌어 네 왕들이 아니라 네 왕의 나라들로 수정하려고 한다. 배 정훈,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 네 왕국 사상,” 『신학과 문화』 제 18집 (2009), 47-49쪽.

9) H. L. Ginsberg,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5쪽.

10) 윗글, 5-9쪽.

왕국 사상의 틀을 전제하되, 단 7장은 안티오쿠스 시대를 반영하고 단 2장은 안티오쿠스 이전의 역사(기원전 4세기)를 반영한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데이비스(P. R. Davies)는 단 2장 전체가 마카비 시대에 편집되었다는 긴스버그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단 2장의 꿈이 형성된 시대와 해석이 형성된 시대를 서로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데이비스는 긴스버그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며 단 2장의 꿈에 마카비 시대 이전의 전승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단 2장에서 꿈과 해석의 차이점을 발견한다.<sup>11)</sup> 1) 해석에는 꿈에 없는 요소들이(단 2: 41-43) 있는데, 특히나 단 2장 41a에서 “그리고 발가락”의 첨가는 주시할만하다. 2) 꿈에서는 손대지 아니하고 돌이 나중에 산을 이루는 데 반하여, 해석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온다. 3) 꿈은 점차적으로 열등한 네 개의 금속들로 이루어진 신상을 말하고, 해석은 연속적인 네 왕국들을 언급하고 있다. 4) 꿈에서 네 금속들은 한꺼번에 파괴되지만, 해석에서 파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단 2장 44절에서는 마지막 왕국이 모든 다른 왕국들을 파괴할 것을 명백히 한다. 데이비스는 위에서 3번과 4번에 네 왕국 사상이 반영된 것을 근거로 단 2장에서의 해석이 마카비 시대에 편집되었음을 증거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단 2장에서 꿈의 내용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단 2장에서의 꿈과 해석이 모두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심한다. 긴스버그의 주장대로 네 왕국이 이미 확정된 기원전 252년에 네 왕국에 관한 새로운 각주가 첨가되었다고 보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시기 이전에 네 왕국 이후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소망이 꿈과 해석에 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데이비스는 단 2장에서 꿈을 해석으로부터 분리하고, 꿈과 해석의 불일치를 대조하여 원래 꿈의 의도를 찾는다. 그에 따르면, 원래 단 2장에서의 꿈이 지시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네 왕인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아넬마르둑(Amel-marduk), 네리글리사르(Neriglissar), 그리고 나보니두스(Nabonidus)를 가리킨다. 느부갓네살 왕 뒤로 세 왕이 일어나고 마침내 그들로 이루어진 신상이 파괴됨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꿈의 의도라는 것이다.<sup>12)</sup>

11) Ph. R. Davies, “Daniel Chapter Two,” *JTS* 27 (1976): 397쪽.

12) B. D. Eerdmans, “Origin and Meaning of the Aramaic Part of Daniel,” *Actes du xviii<sup>e</sup> congrès international des orientalistes* (1932), 198-202쪽; Ph. R. Davies, “Daniel Chapter Two,” *JTS* 27

데이비스의 이론은 단 2장에서 꿈과 해석의 차이점을 주시함으로 긴스버그의 이론으로부터 한 단계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는 단 2장의 해석에 나오는 네 왕국과 단 7장의 네 왕국을 모두 “그리스를 마지막으로 보는 네 왕국 사상”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꿈이 해석과는 분리되지만 네 나라가 아닌 바벨론의 네 왕으로 이해하는 것도 역시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의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 2장은 단 7장에 나타난 네 왕국 사상이나 바벨론의 네 왕을 가리키지 않고, 역사적인 포로 70년이라는 한계 안에서 네 나라를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sup>13)</sup> 즉, 단 2장은 마카비 시대의 편집 때문에 원래 역사적 포로 70년의 틀이 이미 70이래의 틀을 가진 네 왕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역사적 포로 70년의 범주 안에서 종말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한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들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로 이루어지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졌다(단 2: 32-33). 이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 왕국을 설명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하여 서술한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단 2: 37-38). 데이비스의 이론대로 이 꿈이 네 왕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이후의 왕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단 2장 39절 이하의 왕(malkā')과 왕국(malkū)을 비교하고 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단 2: 39). 첫 번째 비교에서 왕과 왕 또는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지 않고, 왕과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터는 연속적인 나라들을 묘사한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단 2: 39-40). 단 2장 44절에서는 네 왕국을 의미하는 여러 왕국의 시대

(1976): 392-401쪽. P. L. Redditt,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59쪽. “꿈의 원래 의미는 신상은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금머리이고 그 외의 세 계승자들은 연속적인 열등한 금속으로서 마지막은 나보니두스나 그의 섭정자 벨사살로 여겨진다.” P. R. Davies, *Daniel*, (Sheffield: JSOT Press, 1985), 48쪽. “이야기의 초기 형태는 신바벨론 제국 내에서 연속적인 왕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원전 2세기의 형태는 네 왕들이 아니라 네 왕국들이다.” R. Anderson, *Signs and Wonders*(Grand Rapids, MI: Eerdmann, 1984), 21쪽.

13)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있다. John E. Goldingay,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9), 51쪽; Seow, 45-46쪽.

가 아니라 여러 왕들(malkayyā')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원래 이 본문이 왕들의 이야기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 본문은 왕과 나라가 혼합되어있다.

학자들 중에는 단 2장에서 해석이 단 7-12장에서와 같이 네 왕국인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또는 바벨론, 메데, 그리스, 로마)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단 1-6장의 문맥에서 네 나라는 역사적인 포로 70년 동안 나타난 네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나라는 첫 번째 나라 이후에 오고(단 2: 39),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단 2: 39), 네 번째 나라는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쪼갤 것이다(단 2: 40)라고 해석한다. 이 말은 넷째 나라가 나타날 때 둘째와 셋째 나라가 여전히 존재할 것임을 암시한다. 본문의 의미를 결정할 때 중요한 점은 나라(malkū)라는 아람어 단어가 반드시 서로 다른 제국들이 아니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단 4: 26, 32, 36); 벨사살 왕의 나라(단 5: 18, 26, 28; 8: 1);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의 나라(단 6: 26, 28);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나라(단 6: 28).<sup>14)</sup>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지나가도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의 나라가 시작된다. 벨사살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는다(단 5: 31). 그리고 다시 고레스의 나라가 시작된다(단 6: 28).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네 나라는 서로 다른 네 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네 왕의 나라들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벨사살 왕의 나라, 다리오 왕의 나라, 그리고 고레스 왕의 나라. 다니엘서에서 역사적인 포로의 끝은 바벨론의 멸망 후가 아니라 포로가 시작된 지 70년이 되는 고레스 3년 이후로 여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 나라의 멸망 후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올 것으로 예언한 것이다. 핵심적인 것은 단 2장은 단 7-12장에 등장하는 70 이레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포로 70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포로 70년 안에 흥했다가 멸망될 네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나라가 첫 번째 나라보다 못하다고 말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벨사살의 나라를 의미한다. 세 번째 나라는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말한다(단 2: 39).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린다(단 6: 25).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 이래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은 다리오 왕이다. 네 번째 왕은 고레스이다(단 6: 28).

14) Seow, 44-46쪽.

고레스는 다니엘이 섬긴 마지막 왕이다(단 1: 21). 고레스가 즉위 하는 동안 우리는 쇠와 진흙이 섞여서 다른 민족이 섞인 것을 보게 된다(단 2: 43). 즉,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정치적인 동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sup>15)</sup>

단 2장 44절의 해석도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네 나라 이후 올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단 2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 시기는 포로 70년 후이다. 이때는 또한 네 왕국이 지난 후가 아니라 열왕의 시대라고 말함으로써 네 왕들의 시대임을 보여준다. 단 2장 44절에서 여러 왕들의 시대에 세우시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둘째, 이 나라는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설 것이다. 셋째, 이 나라는 다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넷째,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단 2장 44절에서 이미 꿈에 대한 해석은 끝났지만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 중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 네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이 산에서 나온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하여 부서졌다는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 장래 일이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만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도 궁극적으로 멸망하리라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산에서 나온 돌을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sup>16)</sup>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라가 임하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은 곧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한 민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다니엘이 속한 유대 백성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백성은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쟁취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 후에 단지 유업으로 그 나라를 받을 백성들일 뿐이다.

### 3. 다니엘서 7-12장: 포로 70이레

단 2장이 역사적 포로 70년에 기초한 네 나라를 설명하는데 반하여, 단

---

15) Seow, 46쪽.

16) Seow, 46-48쪽.

7-12장은 신학적 포로 70이레에 기초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역사적인 포로 70년이 우선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신학적 포로 70이레가 먼저이다. 신학적 포로 70이레를 예언으로 받은 공동체는 역사적 포로 70년이 이미 지나갔지만, 현재를 또 다른 포로로 이해하면서 언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종말이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했다. 단 7-12장이 쓰인 시대는 이러한 종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묵시문학이 성행하던 시대였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시도한 것은 종말에 관한 계시가 토라를 통하지 않고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시도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토라는 구원을 얻을만한 계시의 근거라는 확신을 가지고,<sup>17)</sup>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주어질 종말에 관한 계시를 토라와 예언서에서 나온 전승에서 찾는 것이었다.<sup>18)</sup>

그 출발점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역사적 포로 70년에 관한 예언이었다. 역사적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포로 생활을 하던 70년을 의미할 수 있지만, 신학적 포로 70이레의 신학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할 것이 있었다. 우선 이미 역사적 포로는 끝났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자신들을 포로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포로는 끝났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훼파된 상황을 포로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역사적 포로 상황에서 해방을 기다렸던 것처럼 신학적 포로 상황에서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리면서 “언제까지?”를 질문하였는데, 이 질문의 해답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라는 전승의 기초 아래 찾았던 것이다. 새로운 해석의 초점은 현재 그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네 나라들 중의 마지막 나라이며, 그 나라의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강조하는 것

17) 신명기 29: 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18) 예언은 예언자 예레미야이지만 모든 예언자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토라와 예언서의 권위 아래 있고 볼 수 있다. 토라와 예언서간에 긴장이 이 관계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예언자들은 율법의 설교자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도덕성의 창시자들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한편으로, 예언자들의 설교는 신명기의 율법과는 다르며, 다른 한편 예언자들은 율법의 전승을 포함하여 옛 전승에 의존하고 있다.” G. M. Tucker, “Prophecy and the Prophetic Literature,” in *The Hebrew Bible and Its Modern Interpreters* (Philadelphia: Fortress, 1985), 331쪽. 정경해석방법은 토라와 예언서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많은 구약 예언자들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최종 모세의 토라가 형성되는 시대를 앞서지만, 예언자들의 기능은 예언서들을 모세의 토라에 대한 주석으로 읽는 방식으로 정경으로 편집되었다.” Sheppard, *ABD* 1: 865쪽.

이다. 그리스가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전의 마지막 왕국으로 이해되면서, 네 왕국은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로 밝혀진다.

이러한 네 왕국이 언제까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이 받은 계시인 포로 70년에 근거한다고 이해한다. 그것이 70이레인데, 어떻게 70년에서 70이레가 되었을까? 이 근거는 대하 36장 21절과 레 25-26장에 근거한다. 70이레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일곱 배가 된다. 포로의 기간이 왜 일곱 배가 되었을까? 레위기는 심판이 일곱 배가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레 26: 27-28). 즉,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면 오히려 그 최악의 기간을 일곱 배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연된 포로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간 동안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리고 나면(레 36: 34-35) 포로의 끝이 오는 것이다(대하 36: 21). 또한 예레미야는 포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적들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포로의 끝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이 포로 70이레는 예레미야의 포로 70년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 70이레의 범주아래 네 왕국 사상이 전개된다. 단 7-12장에서 종말까지를 보여주는 70이레 안에 나타나는 네 왕국은 단 1-6장에서 나타나는 네 나라와는 다르다.<sup>20)</sup> 단 1-6장에서의 네 나라들은 포로 70년이라는 기간 안에 멸망할 것으로 예언되었지만, 단 7-12장에 등장하는 네 왕국들은 포로 70이레라는 기간 안에 멸망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예언되었다. 70이레의 핵심도 70이레를 상징하는 490년의 과정 속에 네 왕국이 어떻게 흥망을 반복하는지 보다는, 현재를 고난의 마지막으로 보고 현재 자신들을 핍박하는 실체를 네 번째 왕국으로 이해하면서 그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다. 단 7장은 네 번째 왕국을 그리스로 이해하고 그리스의 안티오쿠스의 멸망과 더불어 역사의 종말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sup>21)</sup> 단 7장의 저자는 지나간 역사의 경험을 살려 둘째 나라와 셋째 나라를 표현한다. 단 7장의 꿈에서 네 번째 왕국은 자세하고 강대한 것으로 묘사하고, 네 번째

19) L. Hartman, "The Functions of Some So-Called Apocalyptic Timetables," *NTS* 22 (1974), 1-14쪽.

20) 다니엘서 7-12장에서의 네 왕국 사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 정훈,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 네 왕국 사상" 『신학과 문화』 18(2009), 43-65쪽.

21) Earnest C. Lucas,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178쪽.

왕국의 열 왕과 열한 번째 왕의 등장을 알고 있다. 단 7장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는 단 8장에서는 메대와 바사를 수양으로, 헬라를 수염소라는 한 왕국으로 해석한다.<sup>22)</sup>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70이레인 490년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정하는가의 문제이다. 70이레의 기간을 설명하는 단 9장 25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번역이 있다.<sup>23)</sup>

데오도시온(Θ)(단 9: 25)	히브리 성경(단 9: 25)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가 지날 것이요, 육십 이 이레 동안 광장과 거리가 함께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지만, 곤경의 때가 임하리라.

데오도시온 역을 따르는 개역개정판 번역은 일종의 해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곱 이레, 육십이 이레, 그리고 한 이레를 연결하여 칠십 이레를 계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번역은 데오도시온 번역을 따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일곱 이레 다음에 절의 중간을 알리는 아트나 표시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를 구별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두 번째 기간인 육십 이 이레가 반드시 앞의 일곱 이레를 지난 후라는 암시는 없다. 차라리 종말로로부터 한 이레를 남긴 때로부터 거꾸로 육십이 이레 전(前)임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육십이 이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시점부터 일곱 이레가 지난 후와 일치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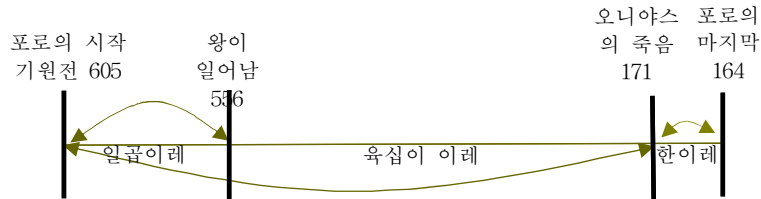
70이레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론적인 해석과 당대의 박해의 중심에 서있는 안티오쿠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있다. 기독교론적인 해석을 시도하

22) 배 정훈,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 네 왕국 사상” 『신학과 문화』 18(2009), 51-52쪽. 7장과 8장에서의 위기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는 58-59쪽을 참조하라.

23) 배 정훈, 「다니엘서: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229-230쪽.

는 학자들은 데오도시온 번역을 따라 단 9장 25절에 나오는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한 단위로 다룬다.<sup>24)</sup> 이 이론의 약점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더한 육십구 이레가 지난 후의 사건이 너무 작위적이며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이 말하는 육십구 이레 후는 다니엘서의 저자 당대로부터 한참 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저자 시대의 급박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예언은 다니엘의 당대에는 의미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시대를 위하여 예언되었다는 단점을 가진다.

칠십 이레의 마지막을 안티오쿠스의 죽음에 맞추는 해석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단 9: 25)을 예레미야의 예언(렘 25: 1)으로 이해한다. 이 때가 기원전 605년이고, 기름부음을 받은 왕의 등장은 한 이레 후이다(기원전 556년). 데오도시온의 번역을 취한다면 기원전 556년 이후에 육십이 이레(434년)가 지나야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따르면 육십이 이레는 일곱이레 후부터가 아니라, 포로의 시점(기원전 605년)을 거치점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원전 605년에 육십이 이레(434년)가 지나면, 기원전 171년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로 알려진 오니야스 III세가 끊쳐진 해이다. 이 경우 기원전 605년은 종말의 시작이 아니라 거치점이 되는 셈이다. 171년 이후의 한 이레는 성전이 회복되는 164년에 마치고, 세 때 받은 167년으로서 박해의 절정에 이른 시기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안티오쿠스의 죽음에 맞추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



24) 여러 가지 해석은 우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견해가 있다. 1. 예레미야의 칠십년 예언 (렘 25: 12<605>, 렘 29: 10<597>). 2. 예레미야의 회복예언 (렘 30: 18-22; 31: 38-40<587>). 3.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539>. 4. 에스라 1: 1-4에 나오는 고레스의 조서<539>. 5. 에스라 6: 1-12에 나오는 다리우스의 조서<521>. 6. 에스라 7: 12-26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조서<458>. 7. 느헤미야의 파견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의 조서<445>. 또한 24절에 지극히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다. 첫째는, 귀환할 때의 인물로서 고레스(사 45: 1), 스킨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숙 4: 14) 등과 일치시킨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한다. Lucas, 242-243쪽.

이 이론은 일곱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더하지 않고 따로 계산함으로, 실제로 종말의 시점은 포로의 시작으로부터 칠십 이레 후가 아니라 육십삼 이레 후가 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론적인 해석의 문제를 피하고 당대인들에게 위기의 문제를 알리고 종말까지 남은 삼년 반을 견디도록 용기를 북돋는 예언에 해당한다.

#### 4. 결론: 포로의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포로의 신학으로 읽을 경우 우리는 다니엘서를 단순히 기원전 2세기의 공동체를 위한 작품으로만 보지 않는다. 기원전 6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단 1-6장과 기원전 2세기의 역사적 정황을 전제로 하는 단 7-12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착점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다. 다니엘서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는 단 7-12장만이 아니라 단 1-6장을 보존하고 있다. 이는 단 1-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이 단 7-12장의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는가의 문제와, 동시에 단 7-12장의 형식이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기원전 6세기 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 의한 예언이라는 장르를 취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를 살면서 400 여년 후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다니엘은 포로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다니엘서 1-6장에는 이스라엘-유다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포로를 경험하면서 포로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포로의 생활을 어떻게 하며, 그들을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침내 포로 생활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다니엘은 역사적인 70년간의 포로가 시작할 때부터 이 포로가 마치는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의 의미를 새기며 해석하며 포로민들이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굳세게 견딘 디아스포라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다른 포로민이 아닌 다니엘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의 이름이었다.<sup>25)</sup>

25) 다니엘 (Dāniyēl)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 14: 14, 20 (Dānī'ēl)에 히브리어 자음인 요드(י)없이 표기되지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스겔서 28장 3절에는 다니엘이 더할 나위 없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 우가릿 문헌에서는 다넬이라는 왕이 존재했는데, 그는 과부와 고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자였다. 회년서(4: 20)에서는 다넬이 예녹의 사촌이요, 장인, 곧 노아의 고조부로 소개된다. Norman W. Porteous, *Daniel.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17쪽. 이로서 다넬은 지혜를 상징하는 예녹과 연결된다. A. Lacoque, Andre, *The Book of Daniel*,

에스겔서의 저자가 포로기의 다니엘을 알았다기보다는 포로기의 다니엘이 완전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고대부터 알려진 위인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취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시대까지 관리로 일하면서 포로를 충분히 경험하였다. 또한 포로 기간 동안 포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름 아닌 토라를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인데, 다니엘은 토라를 잘 지킨 인물이다(단 2장, 6장). 다니엘은 또한 바벨론의 학문을 충실하게 배울 뿐 아니라 학문을 넘어서는 환상과 꿈을 깨달은 자이다. 즉, 다른 유다의 세 친구들과 차별되게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은 자이다(단 1: 17).

그렇다면 특히나 기원전 6세기를 사는 다니엘이 기원전 2세기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단 7-12장에 있는 예언의 내용을 유다의 포로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한다. 유다 백성들은 역사적인 70년 동안의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느헤미야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기원전 2세기에 이 공동체가 다시 당면할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리스 왕에 의하여 성전이 훼파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이 상황을 역사적인 포로 시대와는 달리 신학적인 포로라고 정의한다.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훼파 되었기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원전 6세기를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과 유사하게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기원전 6세기의 공동체들이 이 포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이미 포로를 충분히 경험하고, 포로 기간 동안 신앙을 잘 지키고, 포로의 마지막에 서 있는 다니엘이 포로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은 의미 있을 뿐 아니라 권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둘째로, 다니엘서의 형식이 기원전 6세기의 역사적인 포로와 기원전 2세기에 일어난 또 다른 포로생활을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했다면 우리는 이 책을

trans. D. Pellauer (Atlanta: John Knox, 1979), 3쪽. 배 정훈, 「다니엘서: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15쪽, 각주 1.

26)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서 1-6장이 먼저이지만, 신학적으로는 7-12장이 먼저이다. 7-12장의 저자는 1-6장을 창작하였다기보다는 토라의 권위를 존중한 다양한 공동체의 전승들 가운데 1-6장의 전승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1-6장의 역사성의 진정성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7-12장을 위한 1-6장의 권위의 진정성에 관하여 물어야 한다. 이 글은 1-6장의 전승의 권위를 7-12장에 나타난 공동체가 인식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 가지 다른 시대의 역사를 담은 구약 성경을 다루듯이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단 7-12장이 단순한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라 예언의 형식으로 주어졌기에 해석을 위하여 왜 이러한 장르를 선택하였는지 고려해야 한다. 다니엘서에서는 포로 70년이라는 문학적 구조 안에 다니엘이 포로 70이레의 역사를 예언하는 형식을 보여준다. 70이레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유대 백성들이 역사적 포로 70년의 종언을 경험하였겠지만 그러한 70년 포로의 끝이라는 사건에 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꺾박의 강도는 문학적 구조를 통해 암시된다(단 7: 1 벨사살 왕 원년; 단 8: 1 벨사살 왕 삼년). 벨사살의 죽음으로 바벨론 왕국이 멸망되었지만, 여전히 종말이 오지 않고 70년이 아닌 70이레에 관한 계시로 이어진다(단 9장). 마지막으로 역사적 포로 70년의 마지막 해인 고레스 3년에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에 겪게 될 사건을 예언함으로써 종말에 대한 예언의 문학적 인 극치를 보여준다(단 10-12장).

주목할 것은 사후예언(*vaticinium ex eventu*)이라는 장르가 단순히 이미 일어난 예언을 일어날 것처럼 속이려는 장치가 아니라 이 이미 일어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다.<sup>27)</sup> 장차 말일에 일어날 일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예언이 아니다. 이 예언은 봉합하였다가(단 12: 4) 새로운 포로의 마지막이 임박한 한 때 두 때 반 때가 남은 때에 읽혀야 할 예언이다. 즉, 예정된 70이레의 포로 기간가운데 이미 69이레와 반 이레가 지나고 아직 한때 두 때 그리고 반 때가 남은 시점에 읽게 될 예언이다. 공동체가 이 책(단 7-12장)을 펼쳐 볼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인가? 이 예언은 특히 하늘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맨티시즘(manticism)의 구조 아래 이루어진다. 포로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는 현재 고난을 초래하는 악의 세력이 이미 하늘에서 멸망되었으며, 이제 땅에서도 악의 세력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포로의 끝을 확신하였다. 또한 기원전 2세기의 성도들은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이 행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70이레에 관한 예언 가운데 69이레와 반 이레에 걸친 예언은 성취되

27) 사후 예언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 정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사: 다니엘서 10-12장 연구,” 『신학과 문화』 14집 (2005): 62-68쪽.

고, 반 이레만이 남았다. 70이레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예언을 듣게 하지 않고, 반 이레가 남은 때에 다니엘서를 읽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반 이레가 남은 이때야 말로 박해의 절정에 서 있기에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위험이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남은 반 이레 동안 악의 화신이 멸망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믿음으로 포로의 끝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니엘서를 읽게 될 기원전 2세기의 공동체는 그렇게 포로의 끝이 있음을 알고 다니엘과 디아스포라가 기원전 6세기에 포로시기를 극복한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견딜 것을 요청받는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포로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며 토라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경의 관점으로 볼 때 단 7-12장은 예언을 할만큼 포로를 경험하고, 토라에 신실하며, 꿈과 환상에 은사를 지닌 자인, 다니엘에 의하여 쓰여 장차 기원전 2세기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신학적인 포로를 견딜 수 있도록 주어진 책이다.

## 5. 참고문헌

- 김 영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신학사상,” 「구약논단」 제 21집 (2006), 33-50쪽.
- 배 정훈, 「다니엘서: 설교를 위한 다니엘서 연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7).
- \_\_\_\_\_, 「정경해석방법으로 바라본 묵시문학」 (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 \_\_\_\_\_, “다니엘서에 나타난 전승과 해석: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중심으로,” 「신학과 문화」 제 10집 (2001년), 55-84쪽.
- \_\_\_\_\_, “정경해석 방법의 이해,” 「신학과 문화」 제 9집 (2000년), 71-90쪽.
- \_\_\_\_\_, “포로 칠십년의 비밀: 다니엘서 9장 연구,” 「신학과 문화」 제 13집 (2004), 84-114쪽.
- \_\_\_\_\_,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다니엘서 10-12장 연구,” 「신학과 문화」 14집 (2005), 43-78쪽.
- \_\_\_\_\_, “최종 본문으로 바라보는 다니엘서” 「신학과 문화」 제 16집 (2007), 241-266쪽.
- \_\_\_\_\_, “다니엘서에 나타난 종말: 네 왕국 사상,” 「신학과 문화」 제 18집 (2009), 43-65쪽.

- 장 석정, “포로 사건과 땅의 개념,” 「구약논단」 제 30집 (2008), 167-184쪽.
- Anderson, R. A., *Signs and Wonders*, (Grand Rapids, MI: Eerdmann, 1984).
- Collins, J. J., “The Court Tales in Daniel and the Development of Apocalyptic,” *JBL* 94 (1975): 218- 234쪽.
- \_\_\_\_\_, *Danie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1993).
- Collins, J. J.(ed.), *The Book of Daniel: Composition and Reception*, (Brill Academic Publisher, INC: Leiden, 2002).
- Davies, Ph. R., “Daniel Chapter Two,” *JTS* 27 (1976), 392-401쪽.
- \_\_\_\_\_, *Daniel*, (Sheffield: JSOT Press, 1985).
- \_\_\_\_\_, “Eschatology in the Book of Daniel,” P. R. Davies(ed.), *Sects and Scrolls: Essays on Qumran and Related Topics*, (Atlanta: Scholars Press, 1996), 23-44쪽.
- Ginsberg, H. L., *Studies in the Book of Daniel*, (Texts and Studies of the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4), (New York: Jewish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 1948).
- \_\_\_\_\_,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VT* 4/3 (1954), 246-275쪽.
- Goldingay, J. E., *Daniel* (WBC 30), (Dallas, Tex.: Word Books, 1986).
- Hartman, L./Di Lella, A. A., *The Book of Daniel* (AB 23), (Garden City, N.Y.: Doubleday, 1978).
- Hartman, L., “The Functions of Some So-Called Apocalyptic Timetables,” *NTS* 22 (1974), 1-14쪽.
- Heaton, E. W., *The Book of Daniel* (Torch Bible Commentary), (London: SCM, 1956).
- Lacocque, A., 「다니엘과 그 시대」 (김 창주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2001).
- \_\_\_\_\_, *The Book of Daniel*, (trans. D. Pellauer), (Atlanta: John Knox, 1979).
- Lucas, E. C., *Daniel* (Apollo Old Testament), (Apollos: Leicester, England, 2002).
- Montgomery, J. A., *Daniel* (ICC), (New York: Edinburgh, 1927).
- Porteous, N. W., *Daniel* (A Comment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 Redditt, P. L., *Danie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Sheffield: Sheffield Press, 1999).

- Rowley, H. H., "The Unity of the Book of Daniel,"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London: Lutterworth, 1952), 249-280쪽.
- ,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Daniel: Some Comments on Professor Ginsberg's Article," *VT* 5/3 (1955), 272-276쪽.
- Seow, C. L., *Daniel*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Van der Woude, A. S.(ed.), *The Book of Daniel: In the Light of New Findings*, (Leuven University Press, 1993).
- Wills, L. M., *The Jew in the Court of the Foreign King*, (Minneapolis: Fortress, 1990).

검색어

네 왕국 사상

다니엘서

정경

칠십 이레

칠십년

포로

투고일: 2009년 9월 29일

심사일: 2009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3일

---

## The Book of Daniel Reading from the View of Exile Theology

---

**Chong-Hun Pae, Ph. D.**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sults of historical-critical study of the Book of Daniel from the view of the canon. The historical study of the Book of Daniel reads the book for the community of the 2nd c. B. C., but is likely to regard Daniel 1-6 as artificial and having lost the message about eschatology for the Christian community today. In order to read the Book of Daniel from the view of the canon, we have to connect the subject of eschatology to the contexts of the historical situation in both the 6th century B. C. and the 2nd century B. C., moreover to that of the Christian community today. The unknown writer in the period of the Maccabees did not understand that period as the period of new revelation, but the period which Daniel's prophecy is being fulfilled. To the community in 2nd century B. C, Daniel 1-6 is not the unnecessary literature, but indispensable literature for the authority of the revelation. By showing Daniel-figure obeying to the Torah, the Book of Daniel understands him as having the authority to prophesy for the community in the 2nd c. B. C. Daniel 1-6 focuses on the

four kingdoms within historical 70 years, while Daniel 7-12 focuses on four kingdoms within theological 70 weeks. From the view of the canon, the Book of Daniel is composed of two parts: in the first part, Daniel experienced exile, obeyed to the Torah, and got the ability to interpret dreams; in the second part, the qualified Daniel made a prophecy for the community to endure theological exile in the 2nd century B. C. This study challenges the Old Testament scholarship based on the historical-critical method, and suggest how to read the Book of Daniel as the canon.

### **Keywords**

the Book of Daniel  
Canon  
Exile  
Four Kingdoms  
Seventy Years  
Seventy Weeks